

‘이상과의 대화’ 이상의 집 프로젝트

유 영호 (참여작가)

작품제목 : Ultimate Text, Layer

재료 : 네온, 철재 구조 가변설치

제작년도 : 2011

처음 아람지기 재단으로부터 ‘이상의 집’에 대한 전시 프로젝트를 제안 받고 우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개방’이라는 단어였다. 그것은 이상에 대한 박제화된 전형으로부터 이상을 해방시키고 앞으로 지어질 ‘이상 기념관’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개방적 의미를 제안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관람하는 일반화된 전시 형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무형에서 유형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 형식의 개방된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은 형식의 미술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해온 이주영 작가를 초대하였고 여기에 근대 모더니티에 대한 여러 지역(국가)의 변화와 굴절 등을 아카이빙하고 이를 해체,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 페드로 라고아를 한국으로 초대하였다. 그리고 미술평론가이자 미학자이며 이상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론가 정현, 이상 기념관 프로젝트에 오랫동안 참여하여 온 WISE 건축이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렇게 모인 우리는 아람지기과 함께 두 달여 가까이 참여자, 기획자, 연출자 등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비주열한 공간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대화와 과정을 공유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교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모더니티의 절정이자 한계이기도 한 개인성을 넘어 ‘개방된 자아’로 나가는 실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집'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지난 간 시간의 흔적들로 공공 쌓여진 이상의 옛집을 개방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문턱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 지어질 기념관에 대한 다양한 질문, 즉 모뉴먼트와 메모리얼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념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질문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1. 개방된 공간

공간의 개방화를 위해 중요했던 지점은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개방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이었으며 이를 WISE 건축과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덧붙여진 벽과 천장을 덜어내고 투명한 유리로 최소화하여 안팎의 구분이 모호한 개방된 공간, 최소화한 공간의 개입-마이너스 건축 이란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주얼적인 공간 구성으로서 작가 유영호는 가옥을 가로질러 전망대가 연상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 작품은 서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다른 골목의 연장의 의미를 지니며, 안팎이 열린 구조로 이루어져 관람객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는 주체이자 객체인 양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은 이상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의적 텍스트 구조에 대한 건축적 헌사라 할 수 있다. 관객이 전망대에 오르면 이상 가옥의 여러 필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 개발된 서촌 일대의 무질서한 모습이 낯선 풍경으로 펼쳐진다. 또한 작가는 가옥 지붕 위에 설치되는 텍스트 작업을 통하여 비가해적이고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상의 텍스트에 대한 시각적 메타포를 제시한다. '아, 으, 우, 후, 흐, ~~~'등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병어리가 무엇인가를 절박하게 외치는 상황을 시각화한 것으로 당대와의 소통이 불가능했던 이상을 은유하며 이상의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2. 커뮤니티 플랫폼-다방

이상이 직접 운영했다는 '제비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장소로서의 다방이 아니라 식민지 경성에서 당대의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돌파구로서 일종의 문화적 해방구의 역할을 했던 커뮤니티 플랫폼이었다. 이상의 글들에서 보이는 그의 방대한 지적 영역들은 당대의 지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의 교류 없인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확장된 자유를 갈망하며 이의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비다방을 찾았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상의 집'에 확장된 의미에서 '다방'을 재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방의 운영자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작가 이주영과 페드로 라고아는 '이상의 집'을 작품 속에 숨어버린 이상의 일상과 만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이상이 운영했던 제비 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공간은 다방, 라운드 테이블 토크, 워크숍, 공연장 및 스크리닝을 위한 장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곳 '다방'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서촌 문학저널"과 어린이들과 함께 서촌 일대를 걸으면서 우러러보는 기념비가 아닌 일상 속에 공존하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기념비를 발견하는 "기념비 투어(기념비의 대안적 사용법)"와 같은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열려있는 진행형 프로그램(Program in Progress)을 진행한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 '죽은자의 무게'를 통해 기념비와 기념관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상의 집'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을 제안한다. '배운 구조를 모두 잊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글쓰기 테크닉, 퓨처리스트, 다다이스트, 레트리스트, 윌리엄 버로우와 브라이언 기존의 컷업 등의 예가 소개되며 참여자들은 유희적으로 대안적 언어의 사용과 자신만의 시 쓰기 방법을 고안하는 실험을 한다. 필름 이브닝에선 '발굴된 과거' 1920~30 년대의 근대 식민지 조선영화를 영화 비평가의 해설과 더불어 감상 할 수 있고, 유럽 아방가르드 필름, 현대의 독립 영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미술 평론가 정현은 이상 문학의 난해함과 언어적 이중성 덕분에 다양한 해석을 양산한다는 점을 착안해 이상 문학의 키워드 풀이와 응용, 출간된 관련 서적 목록 등을 정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이후 출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축가 주간을 마련하고 WISE 건축의 주도로 여러 건축가 들이 이상의 집에 대한 상상을 표현한 드로잉을 WISE 건축이 제작한 모빌리티 안에서 게릴라 방식으로 자유롭게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전시한다. 이 외에도 공연이나

퍼포먼스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 진행되며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 될수록 마치 살아있는 세포들이 분열 성장 하듯이 프로그램이 확장하는 열린 플랫폼을 완성한다.

'이상의 집' 프로젝트는 관객과 지역민의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 물론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개발, 제안된 프로그램들이 개방된 기념관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며 새로 지어질 '이상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숨 쉬는 생명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오월 말까지 진행될 프로그램의 내용은 www.yisanghouseproject.blogspot.com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yisanghouse@gmail.com 에 신청하시면 프로그램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프로그램 스케줄은 진행 중이고,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업데이트된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이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